

청소년의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은임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Teens and Self-directed Learning

Kim, Eun Im
Hoseo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릿과 자기조절 학습 간의 영향력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그릿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효과적인 목표 선정에 관여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 유발에 학습자 내적인 효능감을 제공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76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청소년의 그릿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South Korean teens in order to gain an understanding of grit, which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research,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Korean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This study also clarified the process by which learners are involved in selecting effective goals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to provide cognitive efficacy for learners to encourage efforts to achieve their goals. This study was conducted over the period of 4 weeks, and was mainly targeted at the middle-school and high-school boys and girls in Daejeon, Sejong and Cheonan by using 376 collected survey questionnair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and Sobel-tests were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for the data analysis. The hypothesis tes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rit of tee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cademic self-efficacy. Second, the grit of tee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self-directed learning. Third, academic self-efficacy of teen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self-directed learning. Fourth,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teens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ens'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Keywords : Teens, Grit,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Educational Assignment

*Corresponding Author : Kim, Eun-Im(Hoseo Univ.)

email: gold7014@naver.com

Received September 30,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Revised October 29, 2019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청소년의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운 인간으로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립을 준비하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인간은 유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각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적응을 위해 각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는데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업은 주요 발달과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학업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청소년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아실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특히 하루 동안에도 다양한 정보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량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며, 개인의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4].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학습자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양을 판단하여 그것을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삶 전반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5]. 또한 양적과 질적으로 높아진 지식을 교육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이러한 지식을 자신의 인지적 판단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간 유지되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6],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특성을 그릿(grit)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7]. 이러한 그릿은 대학 입시 관련 경쟁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청소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8-9], 끈기와 열정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자신의 학습요구를 이어 나갈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Duckworth 등(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천적인 재능과 지능이 비등함에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을 ‘그릿(Grit)’이라고 개념화하였다[10]. 즉, 다시 말해 그릿은 상황 혹은 시간이 달라진다 해도 비교적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성격적 특질로써 성취목표와 낙관적 귀인, 자기효능감과 같은 학습 동기 요인과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다[11]. 또한 그릿은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에서 서로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음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주영주와 김동심(2016)의 연구에서는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자기주도학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그릿을 언급하였다[12]. 황태향 외(2017)의 연구에서 그릿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연구함으로써 그릿이 자기주도학습을 매개하여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였다[13].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이 학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릿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릿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과 동시에[14-15],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지속시키고, 개인에게 심리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학업과 성공적 과업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격적 특질인 그릿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11], 이서정(2018)과 한상춘(2017)의 연구에서 그릿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16-17].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그릿과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후천적으로 도와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관한 기대와 신념을 나타내는데 학습자는 이러한 내적 특성에 의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게 된다. 특히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수행을 나타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다양한 성공 경험 혹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경우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해 예측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위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18-19].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개인 능력을 의심하기 보다는 학습참여도가 높고, 학습자 스스로 직접적인 학업수행을 긍정적 영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청소년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진로에 대해 목표를 형성하는 시기인데, 이때 개인의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 분야를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끈기와 관심은 동기를 증진시키고 투입되는 노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1], 또한 개인의 끈기와 관심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고과정을 통한 전략적 자기 학습의 계획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인 그릿을 통하여 청소년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그릿과 자기

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
 과의 경로를 상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릿과 자기조절 학습 간의 영향력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아직 연구가 시작단계인 그릿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효과적인 목표 선정에 관여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 유발에 학습자 내적의 인지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의 활용법에 증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릿

학업 수행이나 성취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단기적인 목표 성취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 성취에 중점을 둔 것으로 Duckworth 외(2007)에 의해 소개되었다[10]. 그리고 능력이나 지능이 수행을 성공적으로 예측한다는 보편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꾸준한 연습이 수행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22-23]. 또한, 그릿은 성취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서 21세기 건강한 발달과업 및 진 생애에 걸친 심리발달의 성공적 결과를 유도하는 핵심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24].

‘그릿’은 장기목표에 관한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써 상황적 혹은 개인적인 한계에 직면하더라도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을 말한다[10]. 그릿은 ‘꾸준한 노력(perseverance of effort)’, ‘지속적인 관심(consistency of interest)’의 2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꾸준한 노력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위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개인이 행위를 통제해 나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25], 역경이나 실패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기 있게 노력을 지속하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10]. 지속적인 관심은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목표에 관해 오랜 기간동안 관심을 지속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위해 장기적으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연구에서 정의하길, 그릿은 목표로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이 가능한 마음의 근력이고[26], 결단, 불굴의 의지, 용

기 등의 용어와 맥을 함께한다고 하였다[27].

2.2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은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한 과정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통한 학습계획 설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요구되는 여러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학습전략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28]. 자기주도 학습은 청소년이 동기적, 행동적, 인지적으로 학업과정에서 학업성취를 촉진하여 지식을 얻는 과정이며, 청소년의 의도적인 노력이다[29]. 이처럼 자기 주도 학습이란 사전에 그 단계 혹은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학습 능력 및 실제 학습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따라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실행 능력 및 평가능력을 의미한다[30].

자기주도 학습에서 핵심 요인은 학습의 주체자인 학습자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동기적으로, 행동적으로 메타인지적으로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이며,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실제적인 촉진자를 말한다[31]. 이렇듯 청소년이 자신의 학습에 스스로 참여, 계획,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 및 결정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의 향상, 이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시도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주도권을 지니게 함으로써 훈련될 수 있다[32].

또한 자기주도 학습은 청소년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계획 및 실행하면서 그 과정 및 결과를 판단하는 것으로 학습의 주체가 되려는 학습자의 의도적인 노력[29]이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은 자율적인 학습 성향 및 청소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며[33],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서[34],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31], 자기주도 학습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과정[32]이 중요하다.

2.3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 실행해 나가는 개인 능력에 관한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과제 수행의 결과는 개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결정된다[35]. 또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전략적 수행능력에 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하는 것으로서[36]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 능력에 관한 판단이며[37], '자신이 어떤 행위를 능히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할 때,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행위를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개인의 기대감을 말한다[38].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도, 이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여기기보다는 극복해야 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지한다[39].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포괄적인 개념을 특수한 학업적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들이 학업활동에서 가지는 개인 능력에 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언급되었던 자기효능감에서 학습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발전된 개념으로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 실행해 나가는 개인 능력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35].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당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역경 속에서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는 특징을 지닌다[4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에게 있어 내적 동기가 되어 학업수행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습상황에 적응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개인의 특성 및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41]. 그러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4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

그릿이란 상황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힘이다[10]. 그러므로 높은 그릿을 지닌 사람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실패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높은 학업 성취와 학업적응, 성공적인 수행을 이루어낸다[42]. 또한, 학업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그릿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끈기가 있는 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에서도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43]. 그리고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44], 이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특성과 같은 선행변인과 실제 수행 결과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도 일치한다[4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학생들의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주도 학습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알아보면,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력을 더 많이 하며[34, 46], 학습에 관한 높은 가치를 두고, 학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47]. 이외에도 자기효능감은 과제지속성[48], 과제 선택[49], 기능 획득[46]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여준다. Zimmerman과 Bandura, Martinez-Pons(1992)의 연구에서는 수학적, 언어적 효능감에 관한 학생들의 지각 및 전략 사용과의 관계 연구를 통하여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의 전략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50], Greene과 Miller(1996)도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필요조건임을 보여주는 연구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1].

한편, 그릿은 목표 성취를 위한 투지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의되고,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10].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통제성을 들 수 있으나 자기결정성, 목표와 관심의 지속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자기통제성은 단기 목표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과업의 성취를 증시하는[52] 반면, 그릿은 오랜 기간동안 상당한 수준의 과업을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꾸준함을 요구하는 자기주도학습의 속성상 그릿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매우 유의할 것이고, 이는 Duckworth 외(2007)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10].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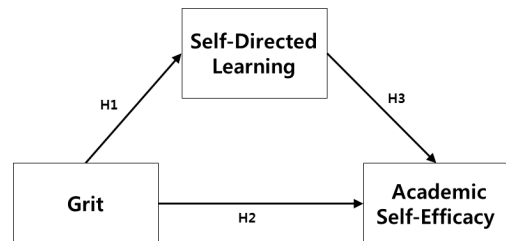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H1. 청소년의 그릿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청소년의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청소년의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천안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40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표집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 수집은 전체 384(96.0%)부의 설문지를 회수, 자료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8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사용한 설문지는 총 376(94.0%)부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하였고,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측정항목의 개별타당성, 범칙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고, 자기주도 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그릿

본 연구의 그릿 측정도구는 Duckworth 외(2007)가 제작한 Original Grit Scale(Grit-O)[10]를 김희은(2018)이 변안한 척도[53]를 사용하였다. 그릿은 '노력의 꾸준함', '관심의 일관성'의 2개의 요인과 요인별로 각 6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릿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그릿의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지와 열정, 끈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살펴보면, 관심의 일관성은 0.896, 노력의 꾸준함은 0.882로 전체 0.923으로 나타났다.

3.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제작하고 타당화 연구를 한 척도[54]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문항만을 선별하여 과제난이도 선호 6문항, 자기

조절 효능감 6문항, 자신감 6문항, 총 18문항으로 설정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살펴보면, 과제난이도 선호는 0.807, 자기조절 효능감은 0.804, 자신감은 0.830으로 전체 0.899로 나타났다.

3.3.3 자기주도 학습

본 연구의 자기주도 학습 척도는 Pintrich와 DeGroot(1990)의 학습동기화 전략검사(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55]를 기초로 하여 양명희(2000)가 제작[28]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문항만을 선별하여 자기주도 학습은 인지조절 8문항, 행동조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기주도 학습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자기주도 학습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살펴보면, 인지조절은 0.834, 행동조절은 0.870, 전체는 0.894로 나타났다.

3.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석 결과 남성 56.4%(212명), 여성 43.6%(164명)로 나타났으며, 학년으로는 중학교1학년 5.9%(22명), 중학교 2학년 18.6%(70명), 중학교 3학년 20.7%(78명), 고등학교 1학년 30.1%(113명), 고등학교 2학년 24.7%(93명)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대한 응답으로 천안 17.3%(65명), 세종 39.1%(147명), 대전 164명(43.6%)로 나타났으며, 성적에 대해서는 하 37.8%(181명), 중 34.8%(131명), 상 27.4%(103명)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로는 아파트가 48.1%(181명), 주택 39.6%(149명), 빌라 12.2%(46명)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요인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모든 하위 요인에 대한 적재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 (AVE)도 각각 기준치인 0.7 과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Table 1과 같이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고, Table 2와 같이 요인부하량(λ)의 값이 요인 분석 결과 0.707에서 0.869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23.883 (p=0.000)	11	.007	.981	.982	.990	.990	.056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 ity	AVE	Cronb ach's α
Grit	→ Consistency of interest	0.780	Fix	-	0.919	0.850	0.923
	→ Steadfastness of effort	0.869	0.084	13.004*			
Academic self-efficacy	→ Preferred difficulty	0.707	Fix	-	0.944	0.850	0.899
	→ Self-regulation efficacy	0.856	0.073	14.673*			
	→ Confidence	0.800	0.079	13.985*			
Self-directed learning	→ Cognitive control	0.784	Fix	-	0.932	0.873	0.894
	→ Behavioral control	0.802	0.071	15.129*			

*** $p < .001$, ** $p < .01$, * $p < .05$

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요인 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릿의 하위 요인 중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각각 41.9%, 46.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인지조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각각 46.5%, 50.1%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가운데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 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요인 중 행동조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각각 58.2%, 58.6%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은 인지조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5.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0.313~0.704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1	2	3	4	5	6	7
1	1						
2	.678**	1					
3	.313**	.416**	1				
4	.419**	.466**	.596**	1			
5	.404**	.417**	.535**	.704**	1		
6	.465**	.501**	.489**	.567**	.550**	1	
7	.433**	.494**	.582**	.586**	.542**	.629**	1

** $p < .01$

1: Consistency of interest, 2: Steadfastness of effort, 3: Preferred difficulty, 4: Self-regulation efficacy, 5: Confidence, 6: Cognitive control, 7: Behavioral control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 결과 Table 4와 같으며, χ^2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아본 결과 Table 5,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26$, $p < .01$), 자기주도 학습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90$, $p < .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91$, $p < .01$).

Table 4. Research model fit

$\chi^2(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23.883 (p=0.000)	11	.981	.990	.982	.990	.981	.007	.056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Grit	→ Academic self-efficacy	.626	.056	9.176	.000	Sig.	
Academic self-efficacy	→ Self-directed learning	.691	.072	9.141	.000	Sig.	
Grit	→ Self-directed learning	.290	.050	4.518	.000	Sig.	

*** $p < .001$, ** $p < .01$, * $p < .05$

다음 Table 6은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간접효과 분석결과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간접효과는 $p < .05$ 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academic self-efficacy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Grit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290	.000	.432	.000	.722	.000

*** $p < .001$, ** $p < .01$, * $p < .05$

본 연구는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56]한 Sobel-test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정(+)적인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Sobel-test result of academic self-efficacy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Grit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6.483	.000

5. 결론

청소년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진로에 대해 목표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지속적인

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끈기와 관심은 동기를 증진시키고 투입되는 노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지속적인 관심이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청소년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그릿과 학업적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천안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사용한 설문지는 총 376부이다. 자료분석은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Sobel-test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상황의 어려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높은 학업성취 및 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42-43]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청소년의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그릿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꾸준함을 요구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장기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 과업을 목표로 나아가는 그릿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Duckworth 외(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10].

셋째,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입증한 선행연구[50-51]의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청소년의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생의 학업환경에서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학업에 대한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학습전략으로 자신의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루었고, 매개효과를 분

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변인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자기주도 학습 전략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변인들을 확인, 수준 차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 시기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로서 학습자의 꾸준한 노력인 그릿, 자신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 및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천안 지역 등의 충청도 소재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시키에는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지 방식에 의한 연구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교육 현장 종사자들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교환경을 직접 관찰하여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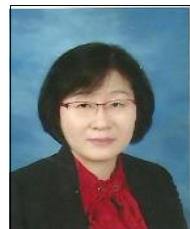
- [1] T. Y. Park, M. H. Do, "An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coaching program on academic self-efficacy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aching*, Vol.8, No.3, pp.91-107, 2015.
- [2] H. J. Ju,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1, pp.237-259, 2011.
- [3] Y. S. Ha, D. M. Yeum,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career maturit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Forum For Youth Culture*, Vol.34, pp.153-180, 2013.
- [4] F. R. Rusch, C. Hughes, M. Agran, J. E. Martin, J. R. Johnson, "Toward self-directed learning, post-high school placement, and coordinated support constructing new transition bridges to adult life",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Vol.32, No.1, pp.53-59, 2009.
DOI: <https://doi.org/10.1177/0885728809332628>
- [5] H. J. Lee, S. K. Kwon, "Effect of ego-resilience and peer attachment upon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in early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0, pp.347-355,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10.347>
- [6] H. S. Ha, H. J. Lim, M. H. Hwang, "The role of grit, goal perception, conscientiousness and resilience in academic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1, pp.371-388, 2017.
DOI: <https://doi.org/10.15703/kjc.18.1.201702.371>
- [7] H. J. L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grit, intrinsic-extrinsic value, classroom engagement, cognitive regu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27, No.3, pp.235-256, 2018.
- [8] S. J. Lee, J. Y. Park,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2, pp.269-276, 2018.
- [9] S. H. Cho, "Grit's control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exhaus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um For Youth Culture*, pp.145-169, 2019.
DOI: <https://doi.org/10.17854/ffyc.2019.01.57.145>
- [10]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1] A. L. Duckworth,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No.2, pp.166-174, 2009.
DOI: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12] Y. J. Ju, D. S. Kim, "Influence of grit (perseverance of effort and consistency of interest), teacher support, and parent support on self-regula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in children in a gifted education program",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15, No.1, pp.29-49, 2016.
- [13] M. H. Hwang, H. S. Ha, M. S. Kim,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self-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6, No.3, pp.301-319, 2017.
- [14] M. M. Chemers, L. T. Hu, B. F. Garcia,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 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3, No.1, pp.55-64, 2001.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93.1.55>
- [15] F. Pajares,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66, No.4, pp.543-578, 1996.
DOI: <https://doi.org/10.3102/00346543066004543>
- [16] S. J. Lee, "The effects of mindsets on academic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mediated by grit: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whether the students gave up on mathematics or no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9, No.1, pp.59-87, 2018.

- DOI: <https://doi.org/10.15753/aje.2018.03.19.1.59>
- [17] S. C. Ha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Jeonju of Korea, pp.17-20, 2017.
- [18] D. J. Na, M. K. Shin, I. K.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efficacy and academic anxiety in the relation of social academic goa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6, No.1, pp.131-152, 2008.
- [19] M. S. Shim, H. S. Oh, "Influence of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6, pp.328-337, 2012.
- [20] B. J. Zimmerman,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An overview.", *Theory into Practice*, Vol.41, No.2, pp.64-70, 2002.
DOI: https://doi.org/10.1207/s15430421tip4102_2
- [21] S. J. Lee, H. J. Shin, "The effect of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efforts and self-regulation learning strategies on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0, No.4, pp.1045-1077, 2012.
DOI: <https://doi.org/10.25152/ser.2012.60.4.1045>
- [22] J. E. Kim, S. R. Lee, S. J. Yang,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grit: Examining multidimensional clustering of grit",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4, No.2, pp.131-151, 2018.
DOI: <https://doi.org/10.20406/kjcs.2018.5.24.2.131>
- [23] Y. R. Yu, J. W. Yoo, H. K. Park, "A relationship among grit, objective reaso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efficacy of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10, pp.367-385, 2015.
- [24] M. R. West, M. A. Kraft, A. S. Finn, R. E. Martin, A. L. Duckworth, C. F. Gabrieli, J. D. Gabrieli, "Promise and paradox: Measuring students' non-cognitive skills and the impact of school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38, No.1, pp.148-170, 2016.
DOI: <https://doi.org/10.3102/0162373715597298>
- [25] K. Natale, K. Aunola, J. E. Nurmi,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their parents' causal attributions to ability and effor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0, No.1, pp.14-22, 2009.
DOI: <https://doi.org/10.1016/j.appdev.2008.10.002>
- [26] J. H. Kim. Grit: To prove potential as a skill, as a result of sexuality, as a result of studying. pp.92-113, Paju: Sum & Parkes, 2013.
- [27] M. S. Kim, S. H. Lee, S. H. Baeck, Y. S. Choi,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pp.297-322, 2015.
- [28] M. H. Yang,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eoul of Korea, pp.22-25, 2000.
- [29] L. Corno, E. B. Mandinach, "The role of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learning and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Vol.18, No.2, pp.88-108, 1983.
DOI: <https://doi.org/10.1080/00461528309529266>
- [30] G. E. Spear, D. W. Mocker, "The organizing circumstance: Environmental determinants in self-directed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35, No.1, pp.1-10, 1984.
DOI: <https://doi.org/10.1177/0001848184035001001>
- [31] B. J. Zimmerman,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1, No.3, pp.329-339, 1989.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1.3.329>
- [32] P. C. Candy,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 [33] H. Long, "Self-directed learning by the elderly: Review of dissertation abstracts", *Educational Gerontology*, Vol.19, pp.1-7, 1993.
DOI: <https://doi.org/10.1080/0360127930190101>
- [34] D. H. Cho, *The effects of self-directed cooperative learning on learn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 according to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Doctoral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Jeonju of Korea, pp.32-36, 2011.
- [35]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36] R. E. Wood, E. A. Locke,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47, No.4, pp.1013-1024, 1987.
DOI: <https://doi.org/10.1177/0013164487474017>
- [37] D. H. Schunk, "Modeling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3, No.1, pp.93-105, 1981.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73.1.93>
- [38] N. S. Kim,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Seoul: Education Science History, 1995.
- [39] S. S. Lim,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model of resilience and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0, pp.1-26, 2013.
- [40] M. S.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ademic*

- self-efficac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between the only child and sibling chil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pp.43-44, 2006.
- [41] Y. M. Lee, J. R. Joeng, "The relationships with academic self efficacy and test anxie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38, pp.57-75, 2015.
- [42] A. L. Duckworth, L. Eskreis-Winkler, "True grit", *Aps Observer*, Vol.26, No.4, pp.1-3, 2013.
- [43] E. L. Usher, F. Pajares, "Sources of academic and self-regulatory efficacy beliefs of entering middle school stud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31, No.2, pp.125-141, 2006.
DOI: <https://doi.org/10.1016/j.cedpsych.2005.03.002>
- [44] S. C. Ha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Jeonju of Korea, pp.16-20, 2017.
- [45] G. Hackett, R. W. Lent,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areer psychology",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 pp.419-452, 1992.
- [46] D. H. Schunk, *Self-regulation of self-efficacy and attributions in academic settings*. In D. H. Schunk & B. J. Zimmerman (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pp.75-9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4.
- [47] P. R. Pintrich, E. DeGroo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on student motivational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Boston, MA: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90.
- [48] A. Bandura, D. Cervone, "Self-evaluative and self-efficacy mechanisms governing the motivational effects of goal syst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5, No.5, pp.1017-1028,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5.5.1017>
- [49] A. Bandura, D. H. Schunk,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1, No.3, pp.586-598, 1981.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1.3.586>
- [50] B. J. Zimmerman, A. Bandura, M. Martinez-Pons,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29, No.3, pp.663-676, 1992.
DOI: <https://doi.org/10.2307/1163261>
- [51] B. A. Greene, R. B. Miller, "Influences on achievement: Goals, perceived ability, and cognitive engage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1, No.2, pp.181-192, 1996.
DOI: <https://doi.org/10.1006/ceps.1996.0015>
- [52] H. H. Lim, H. I. Cho,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grit scale f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2, No.3, pp.495-523, 2018.
DOI: <https://doi.org/10.17286/kjep.2018.32.3.08>
- [53] H. E.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formance self-confidence, mastery goal orientation, grit and stress coping styl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erforming arts*. Ph.D dissertation, Jeonju University of Jeonju, Korea, pp.29-34, 2018.
- [54] A. Y. Kim, I. Y. Park,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grit scale for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Vol.39, pp.95-123, 2001.
- [55] P. R. Pintrich, E. V. De 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1, pp.33-40,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2.1.33>
- [5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9,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김 은 임(Kim, Eun Im)

[정회원]



- 2015년 8월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 20018년 8월 : 호서대학교 교육학 전공 철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평생교육, 교육학, 학습컨설팅